

사
람
이

어
게

개

의

미

가

되

는

순
간

사람이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순간

사람이
맘에
있게

이

미

가

도

는

순간



CONTENTS

2020 우수 복지 프로그램 공모전
COVID-19 대응 우수사례집

04

발간사

- **사람이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순간**
고일환 원장(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06

심사위원 총평

- **신기원 교수**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이창식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학과)

12

도지사 표창

- **추억의 장터 호서점빵**
+ 호서노인전문요양원

18

- **사람과 삶이 꽃피는 치료실**
+ 논산시사람꽃복지관

24

- **슬기로운 자립생활**
+ 사랑의집

30

서비스원장 표창

- **ON & OFF**
+ 아우내은빛복지관

36

- **온라인 개관_방구석 복지관**
+ 당진북부사회복지관

42

- **크나이프 자연 숲 치유활동**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성체회 새감마을

48

- **영그린 효자**
+ 호서복지재단 효자의집

54

- **시니어 그들이 사는 세상 채널 TV**
+ 흥성군노인종합복지관

발간사

사람이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순간

고일환 원장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요즘 코로나 블루, 확진자, 집콕족, 언택트, 금스크, 코로노미 쇼크 등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중 코로나19가 바꾼 대표적인 사회의 모습이 바로 ‘언택트’ 일 것이다. ‘언택트’는 부정 접두사인 ‘언(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외출 및 모임 자제, 홈스쿨링,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언택트 시대 속에서 ‘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임시 휴관 조치가 내려진 복지시설들도 ‘위기대응 전환 업무’로 긴박한 날들의 연속이다.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급식식당 대신 도시락 배달, 봉사단을 통한 방역서비스 및 마스크 배부, 찾아가는 복지관 등 대면 서비스를 이어가는 한편 키트 발송,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복지 공백 최소화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돌아감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지난해 복지재단 설립 이후 1년 만인 9월 4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전환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목적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재가센터를 비롯한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 사회서비스시설 지원 강화, 연구를 통한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대구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기존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운영을 중단하고 제공인력들은 돌봄서비스를 중지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구성하고,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시·경상남도·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긴급보육과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도 충남도에 돌봄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12월,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전국 2단계로 격상되었다. 곳곳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확산됐다는 암울한 소식에 온 국민이 지쳐있는 상황이다. 이 사례집의 제목인 ‘사람이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순간’은 오문세 장편소설 <그치지 않는 비>의 한 대목 ‘사람이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순간,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준 사람이야’에서 따왔다. 이 세상에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전 세계적인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코로나19 또한 언젠가 그칠 것을 믿는다.

심사위원 총평



신기원 교수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필자 역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삶을 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양산되면서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은 봉쇄와 단절 및 격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시설의 경우 대면서비스가 중단되고 설사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하여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및 발열체크는 기본이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한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거주시설의 경우 막대한 영향을 미쳐 외부인의 출입금지, 가족과의 만남 불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중단 등으로 시설 내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은 답답함과 무료함 및 고립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실로 사회복지분야는 비상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거리두기가 지속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도 증가하여 사회복지분야는 그야말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코로나19 뒤에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복지기관이나 시설이 봉쇄되고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이 단절되다보니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새롭게 바뀐 상황에서 실천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클라이언트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러한 복지기관과

시설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천사레’를 공모하였다. 총 18편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사업적합성, 창의성, 대상자 욕구반영, 사업효과성을 기준으로 심사하였다.

대체로 거주시설에서는 외부인출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입소자들의 신체역량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면프로그램과 식물이나 자연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시설이나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보호자들에게 안심을 주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내역을 밴드 등에 게시하여 보호자들과 소통채널을 형성한 것을 보면서 예전 아들이 공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생활을 할 때 아들의 소식이 궁금하여 훈련소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했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한편 복지관의 경우에도 대면서비스를 대체 및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들은 주로 온라인을 활용한 것으로 대상자들이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한 건강관리 및 의사소통을 진행한다든가 온라인 강의 및 문화공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스마트기기 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실제에 적용·콘텐츠도 제작하여 시청자들과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방구석복지관을 개관하여 유튜브로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생활을 취재하여 방송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시대는 언택트 사회를 만들었다. 비대면문화가 확산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었고 이에 따라 심리적 거리두기도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사회복지영역에 상황적응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대면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실천영역인 것을 감안하면 신속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설이나 기관의 몫이다. 그동안의 경험을 참고하고 앞서가는 사례들을 숙지하여 해당기관의 것으로 내면화·특성화 시켜야 한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과 탐구를 지속하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이를테면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접근의 경우 기기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클라이언트에게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된다. 따라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체 및 공모사업을 진행하되 수요자의 욕구와 해당기관의 실정에 부합하는 선택적 실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현장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일선에서 쏟은 열정과 땀에 비례하여 풍성하고 비옥해지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총평



이창식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학과)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 실천사례를 주제로 한 2020년 우수 복지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심사하였다. 심사를 하면서 한 가지 초점은 충남북지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 대면을 통한 사업은 어떻게 하고 비대면을 통한 새로운 대안 마련은 잘 되고 있을까? 어찌 보면 나의 궁금증이 심사의 기준이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기관이나 시설이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의 복지사업의 방향에 큰 변화는 없었다. 문제는 어떻게 팬데믹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이나 시설이 대처해 나가는가가 가장 핵심이었다.

심사한 기관 중 호서노인전문요양원의 '호서점빵'은 아이디어가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이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주 1회이지만 쿠폰으로 맛난 음식을 골라 사 드시고, 야외에서 햇빛 산책도 즐겨 정서 안정을 찾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매주 그 날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즐겁게 참여하게 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논산시사람꽃복지관의 '사람과 삶이 꽃피는 치료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중단될 뻔한 상황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활동 자료를 개발하고, 감각통합, 작업활동, 언어재활, 심리치료,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비대면 서비스로 치료를 이어가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 유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어 높이 평가되었다.

사랑의집은 '슬기로운 자립생활'에서 신체면역강화를 위한 등산, 산책, 실내운동을 적용한 자립생활지원 모델을 개발하였고, 효자의집은 원예교실, 작물재배, 산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코로나 19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높이 평가받았다. 또 새감마을의 '크나이프 자연 숲 치유활동'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 놀이와 친환경 농작물 재배를 통하여 면역력 증진과 심리 정서 안정을 찾고 스스로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을 함양하여 높이 평가되었다.

아우내은빛복지관은 'ON&OFF'프로그램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와의 단절 및 우울감이 증가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은 시사콜콜 TV, 슬기로운 집콕 봉사생활, 우리함께 어깨동무 등의 '온라인 개관_방구석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불어 살고 돕는 사회복지현장을 실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은 '시니어 그들이 사는 세상 채널 TV'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충남의 많은 기관과 시설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방법의 전환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들의 복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간데 대하여 높게 평가하였다. 심사한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공로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닥쳐 올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을 늘 염두에 두고 긴장을 놓지 않고 대비 능력을 갖춰 충남 복지의 촛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공모전 소개

COVID-19 대응 사회복지 실천사례

2020년 우수 복지 프로그램 공모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복지시설·단체의 숨은 노력을 도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공모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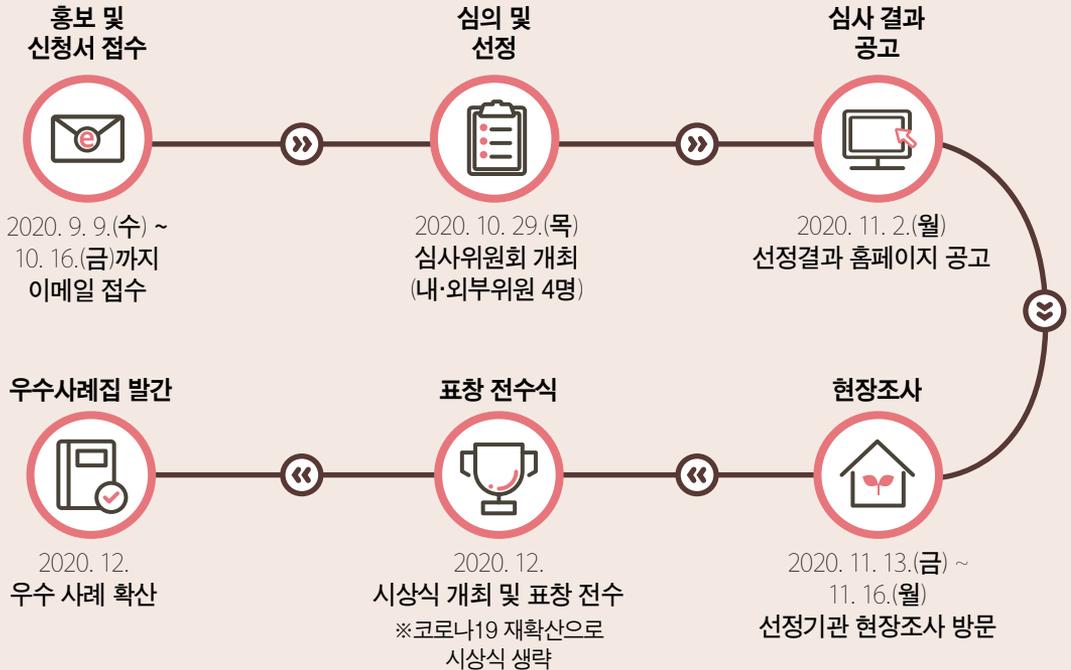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 프로그램
- 돌봄 공백 해소, 비대면 서비스, 긴급지원 등 다양한 주제

참가대상

충남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시상규모

충남도지사 표창 3점, 충남사회서비스원장 표창 5점





우수 복지 프로그램 공모전에 제출해주신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 실천사례 신청서에서 발췌한 키워드입니다.

추억의 장터 호서점빵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추진배경

코로나19로 노인요양시설에 입거 중인 어르신들의 보호자 면회가 중단된 상황에서 추억의 5일장을 떠올릴 수 있는 호서점빵을 실시하였다. 점빵의 물건을 스스로 고름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야외공연, 산책 등도 함께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시설 생활 스트레스 해소 및 만족감을 높였다.

사업목적

- 1 장터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참여 및 스스로 물품 선택
- 2 분기별 어르신 자치회의에서 프로그램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
- 3 층간 어르신들과 교류 촉진 및 옛 노래 듣기, 산책 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주요내용



1. 사업명

노인요양시설 치매어르신의 자기결정권 회복을 위한 추억의 장터 '호서점빵'

2. 사업대상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입거중이며 호서점빵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6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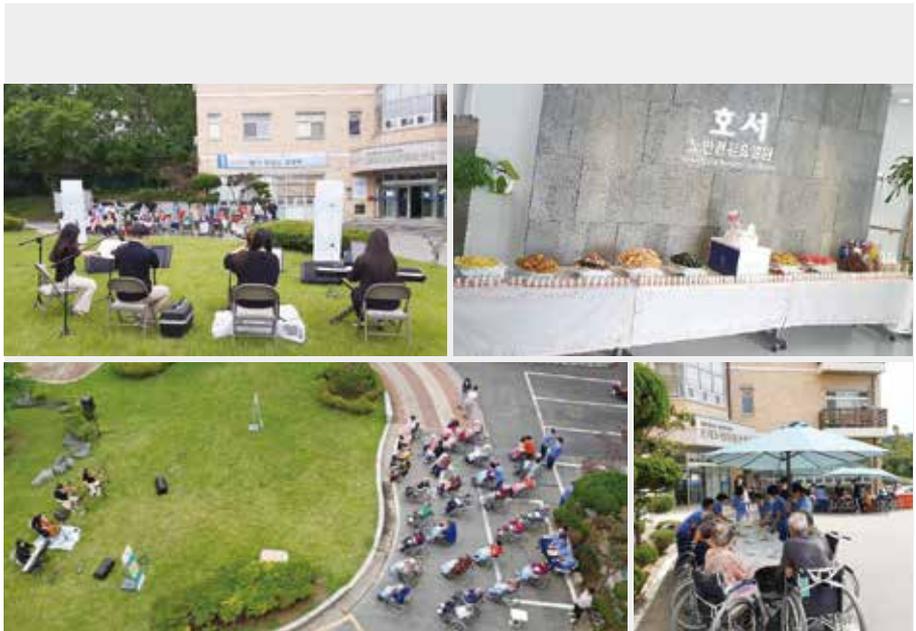
3.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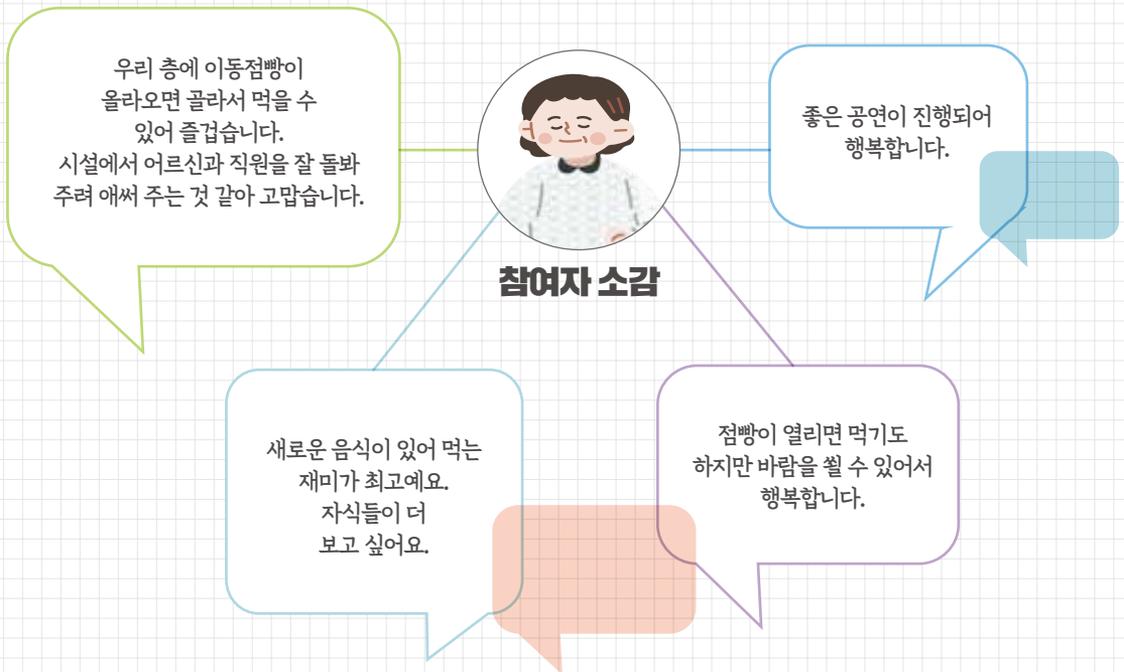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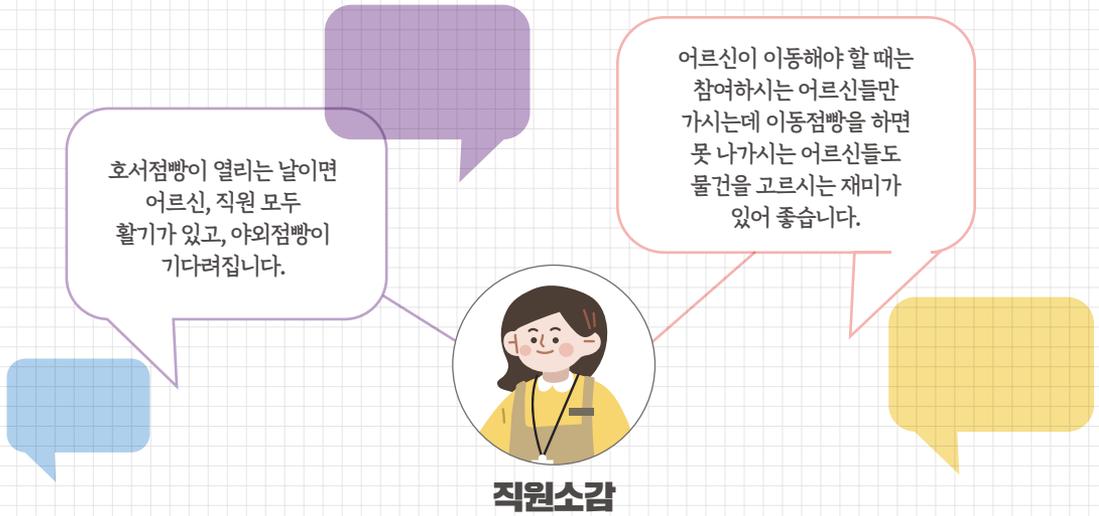
<p>어르신 자치회의</p>	<p>분기별 욕구 설문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p>	<p>설문조사 결과 드시고 싶은 음식, 보고 싶은 사람 등의 점빵 운영 및 식당 메뉴에 반영</p>
<p>호서점빵</p>	<p>추억의 장터 '호서점빵'</p>	<p>쿠폰을 넣고 어르신의 기호도나 치아 상태에 따라 진열된 음식, 추억의 먹거리 등을 직접 구매</p> <p>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이동점빵 동시 운영</p> <p>장터에서 구입한 것을 식당 또는 야외 그늘막에서 섭취하며 층간 어르신 교류 기회 제공</p> <p>옛 노래를 들려드려 흥겨운 분위기 조성</p>
<p>야외 음악회</p>	<p>잔디밭에서 찾아가는 국악 및 현악 4중주 공연 등 관람</p>	



사업성과

- 1 추억의 호서점빵, 야외 음악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햇볕을 쬐고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기분 전환함으로써 우울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2 시설 밖으로 외출이나 보호자 면회도 제외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활동 영상과 사진을 '사랑하호서'가족 밴드에 올리거나 영상통화를 실시하여 어르신과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마련
- 3 어르신 자치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결과에 따라 메뉴, 프로그램 내용, 요양원장에게 바라는 점, 친절할 직원 등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어르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기결정권 회복







오민자 과장

(호서노인전문요양원 행정지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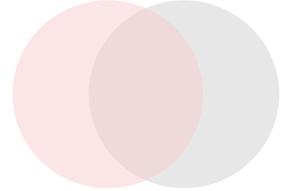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며

2020년 한 해도 마무리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들과 보람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2월 말부터 코로나19 등장으로 문에 내걸린 출입금지와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가족들의 면회도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비접촉 면회로 짧은 시간 유리 사이로 얼굴을 마주 보며 안부를 여쭙었었지만 지금은 다시 2 단계로 격상되어 조심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원과 어르신 모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실내 소독 등으로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음에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호서노인전문요양원(원장 김원천)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위해 진행하였던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쿠폰을 이용하여 상품을 어르신이 직접 고르실 수 있도록 한 추억의 5일장을 연상할 수 있는 호서점빵을 운영하였습니다. 월 3회 점빵을 운영하며 마지막 주는 점빵에 못 나오시는 와상어르신들을 위해 이동점빵을 운영하였고, 날씨가 좋아 햇볕 산책하기 좋은 시간에는 야외점빵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메뉴를 다양화해보기 위해 계절 과일과 숯불 바비큐, 추석에는 뷔페 등으로 잔치 분위기를



내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점빵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음식을 서로 나누어 드시는 모습이 좋았고 간혹 차가운 팔빙수 등은 설사를 유발할까 준비하면서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어르신 자치회의를 통해 어르신들이 원하는 드시고 싶은 음식 3가지,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 서비스 우수 직원을 직접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야외 공연으로 공연자와 어르신 간 사회적 거리 유지, 마스크를 착용하며 관현악4중주(지파르테)와 국악 공연(가야금, 오카리나)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감동을 가져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지기능지원과 여가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속에서도 진행된 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과 직원 모두 행복한 호서노인전문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 삶이 꽃피는 치료실



논산시사람꽃복지관

추진배경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임시 대응 운영기간이 길어지면서 재활치료 서비스가 중단되어 공백이 생겨났다. 특히 외출과 운동 빈도가 줄어들면서 이동 공간 제한 및 일상 패턴의 무너짐이 생겨났고, 교육·여가·사회적 상호작용의 참여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새로운 사업 방안을 계획하여 실천하였다.

사업목적

- 1 지역사회 내 장애 아동 및 성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팀 운영방향에 따라 재활치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지속
- 2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1. 사업명

기능향상지원팀 재활치료사업 ‘사람과 삶이 꽃피는 치료실’

2. 사업대상

논산시사람꽃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재활치료 대상자 총 49명

3. 사업내용

<p>개별 맞춤형 가정지도 자료제작</p>	<p>가정에서 하면 도움이 되는 운동 및 놀이를 계획하여 자료 제작 및 개별 지원</p>	<p>대상자별 장단기 목표와 치료실에서 진행했던 활동 검토</p> <hr/> <p>상담 시 보호자가 요청했던 자료 또는 대상자의 양육 및 돌봄에 도움이 되는 상담 자료 첨부</p>
<p>건강관리 및 의사소통 교육</p>	<p>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교육</p>	<p>치료실 공동 감염예방수칙 매뉴얼과 개인별 치료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 감염예방수칙 매뉴얼 제작</p> <hr/> <p>꼭 알아야 하는 코로나19 관련 단어 및 감염예방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 이해 및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p>
<p>비대면 치료 서비스</p>	<p>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영역 간 통합 치료</p>	<p>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톡, 영상전화, 줌(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동법 시범 및 교육</p> <hr/> <p>가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수건, 동전, 컵 등)를 활용한 가정환경별 운동법 안내</p>



사업성과

- 1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만남의 제한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면서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치료 서비스 지원 및 대상자와의 끊이지 않은 연결이 큰 의미를 가짐
- 2 재활치료의 경우 치료실에서 진행되는 1:1 대면 치료가 일반적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대응 운영기간 동안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실제로 시도하는 계기가 됨
- 3 현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연결을 시도함. 또한 이번 사업 결과를 더 발전시켜 향후 돌발 상황에서도 서비스 중단 없이 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홈 프로그램을 교육하였으나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가정환경을 둘러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불편하거나 위험한 점이 없는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가정환경에 맞는 운동 방법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교구나 기구가 없어도 집에 있는 수건, 의자, 쿠션, 지팡이 등으로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직원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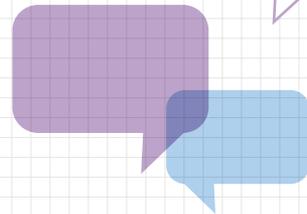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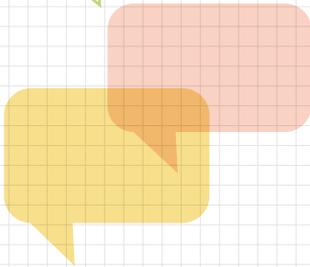
선생님과 영상 연결을 전달부터 기다렸어요. 요즘 아무 데도 가지 못해 지루했는데 기대되는 약속이 생겨서 좋았어요.



참여자 소감

요즘 아이가 유치원에서 무는 행동이 다시 심해졌다고 했는데 구강 놀이나 구강 근육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가족들과의 영상전화는 거의 불가능한데, 선생님들과는 꽤 오래 쳐다보고 집중하네요. 저도 놀랐어요.





김혜란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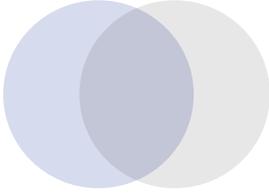
(논산시사람꽃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시작하는 경험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12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큰 영향을 주어 예년보다 더 힘들게 지나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간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저희의 역할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시도의 과정들을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솔직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논산시사람꽃복지관은 논산시의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이며, 저희 기능향상지원팀의 팀 운영 방향은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장애 아동 및 성인의 '건강한 삶'을 고민하고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새로운 사업 방안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피드백을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성과는 복지관과 팀의 본질적인 목표를 계속 고민했던 시간들, 그리고 현재 만나고 있는 대상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실천했던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대면 연결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 의심과 불안도 있었지만, 장비나 기술적인 준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치료사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대상자와 보호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연결을 좋아하실까? 연결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대상자들은 흔쾌히 연결을 허락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평소 쓰지 않던 태블릿PC를 준비해 주기도 하시고, 시간을 내어 연결에 응해주셨습니다.

무조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일단 시도해보고 나니 효과와 장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과 연계한 치료가 오히려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개별 맞춤 운동과 상담도 가능하였습니다. 2개 영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2명의 담당 치료사가 함께 논의하여 치료 활동을 준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영역 간 통합 치료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안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 일단 할 수 있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시작하는 경험, 그 결과에 따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변화시켜야 할 부분은 변화시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가을 비대면 치료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 현재는 다시 복지관 운영이 재개되어 치료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1:1 대면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상 시대, 이번 경험을 토대로 저희는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전보다 좀 더 유연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의 작은 경험이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 동기부여가 되어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전이라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되어 사회적 소수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로를 믿고 새로운 사업을 기꺼이 시도해 준 팀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람과 삶이 꽃피는 치료실'은 대상자들에 대한 애정과 전문 치료 영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치료사들이 모두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일상의 시대는 더욱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같이의 가치'를 느끼는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립생활



사랑의집



+ 추진배경

코로나19 이전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립지원은 지역사회와의 통합, 사회기술훈련 등 지역사회 중심이었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와 교류가 어려워진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립계획과 훈련,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내 자립생활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및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되었다.

+ 사업목적

-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신 면역 강화
- 2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새로운 접근 모델 필요



 주요내용



1. 사업명

시설 거주 지적장애인의 코로나19 대응 자립 프로그램
‘슬기로운 자립생활’

2. 사업대상

사랑의 집 거주 장애인 30명

3. 사업내용

<p>신체면역강화</p>	<p>개인 신체 능력 및 일기 따라 등산, 산책, 실내운동 등의 신체활동으로 신체 면역력 증가</p>
<p>심리면역강화</p>	<p>개별상담, 도전적행동지원, 스트레스해소, 테라스 티타임 등의 활동으로 정서 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p>
<p>휴양림 1박2일 캠프</p>	<p>휴양림 전체를 1박2일 동안 대여하여 다른 이용객 없이 안전한 캠프 진행</p>
<p>비대면 쇼핑, 배달음식</p>	<p>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p>
	<p>배달 앱 또는 홍보지를 이용해 직접 먹고 싶은 음식을 결정·주문한 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p>
<p>시설 내 자립생활 시스템 구축</p>	<p>기존의 지역사회 중심 자립생활지원에서 다양한 방식과 아이디어를 통해 시설 내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시스템 구축</p>

사업성과

- 1 사업 초창기에는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참여자가 많았으나 다양한 신체활동 및 심리지원으로 점차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낮아짐
- 2 정서불안으로 해결중심단기상담을 진행했던 한○○장애인의 경우 상담 이후에 관심을 받기 위해 구토, 혼잣말 등의 행동들이 많이 줄어들고 긍정적 행동으로 대체되어 안정된 모습을 보임
- 3 모든 장애인은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거주 공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장애인 자립 이념을 기초로 하여 거주시설도 장애인의 자립 생활 거주 공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설 내에서 다양한 자립생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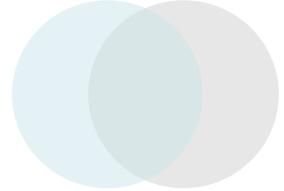
서보라 국장
(사랑의집)

“즐기로운 자립생활”을 진행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전망할 때 하는 말입니다. 슬프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대면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의 특성상 지난 2월부터 지금 시점까지 이전의 많은 연구와 경험,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좋은 사업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기에 저희는 멈출 수 없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립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게 멈춤은 일시정지가 아닌 후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경험과 훈련, 준비가 진행 되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일단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의지를 담아 뒷산 등산과 산책을 하며 신체적 면역을 키우고, 외부인원과의 접촉 최소화로 받는 정서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이나 원내 프로그램, 안전한 외부 활동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장애인분들과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실천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 중에 문득 자립생활은 꼭 시설 밖에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외부 활동은 제약이 있으니 원내에서 최대한 자립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립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닌 우리 근처에서, 또 바로 옆에서, 외로운 싸움이 아닌 함께하는 동료들과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자립생활 실천을 현실로 이뤄내고 증명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게 보였고 인식을 한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간적 제약과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는 단체생활, 이웃주민들과 함께하며 화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설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한발 한발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고, 그렇게 자립과 행복을 위한 슬기로운 진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슬기로운 자립생활은 이제 시작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함께 화합하여 삶을 가꾸간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우리는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는 선언이며 실천이고 약속입니다.

ON & OFF



아우내은빛복지관

✦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여가단절 및 외부활동 제한으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형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유익한 여가시간 및 상실감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다.

✦ 사업목적

- 1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문화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와의 단절 및 우울감이 증가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주요내용



1. 사업명

지역사회 어르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ON&OFF'

2. 사업대상

아우내은빛복지관 이용 회원 7,072명

3. 사업내용

ON (비대면 프로그램)	평생교육 온라인 강의 '아우내 학당'	대상자별 장단기 목표와 치료실에서 진행했던 활동 검토
	그리운 어르신을 위한 실시간 문화공연 '따로 또 같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
OFF (대면 프로그램)	저소득 독거노인 우울예방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슬기로운 집콕생활'	긴급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토마토 키우기, 모빌 만들기 등 8개 프로그램)



사업성과

- 1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어르신의 유대감 형성 및 친밀도 증가에 따라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외부활동 제약으로 외로움 및 고독감이 높은 어르신들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울감 및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
- 2 자택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강좌 및 문화공연 등 비대면 문화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과의 소통 확대 및 다양한 정보제공에 도움
- 3 온라인 강의 “아우내 학당”은 현재 업로드 영상 20개 조회 수 6,451명으로 많은 어르신 및 지역사회 주민들이 시청하였고, 실시간 문화공연 “따로 또 같이”는 실시간 시청 인원 113명, 누적 조회 수 1,000건 이상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뿐만 아니라 복지관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됨





이전에는 어르신 가정방문 시 안부확인이나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더욱 친밀해지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변화되는 어르신의 모습에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문화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고, 어르신들의 위해 준비한 공연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직원소감



듣고 싶었던 수업을 집에서도 공부하고 이어서 할 수 있어 기쁘고 영상으로나마 강사님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하루빨리 복지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성취감과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복지관에 못 가고 집에서 많이 답답했는데 트로트 노래도 듣고, 선물도 받고, 반가운 선생님들 얼굴도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여자 소감



노진희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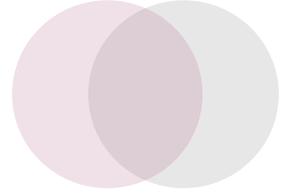
(아우내은빛복지관 복지서비스팀)

따로
또
같이

2020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19로 시끄러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외출은 어색해지고 서로 마주 보고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당연한 것들이 낯설고 불편해졌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익숙하지 않은 행동수칙을 따르며 모두가 불편한 일상을 감내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생활도 낯선 환경들 투성입니다. 아침부터 복지관 어르신들의 시끌벅적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지금은 어르신들의 온기가 없어지고, 열화상 감지기와 손소독기로 차가운 공기만 내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복지관 휴관이 길어지면서 ‘복지관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복지관 오는 낙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복지관 이용도 못하고 불안과 걱정으로 바깥 외출도 어려워서 ‘집콕’ 하고 계실 어르신들을 위해 직원들이 하나둘 아이디어를 모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까? 몇 분이나 보실까? 하는 걱정을 안고 아우내시니어대학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결과는 걱정이 무색할 만큼 많은 어르신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호응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 얼굴도 볼 수 있고 복지관도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고 말씀하시며, ‘애써줘서 고맙다’는 마음도 전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열띤 반응과 응원에 용기를 얻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과 '따로' 떨어져 있지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같이' 소통하며 즐기실 수 있는 '따로 또 같이'라는 문화공연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매월 복지관 생신잔치에서 멋진 공연을 해주신 전속가수와 함께 모처럼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어두운 기분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아 갔지만, 잊고 있었던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아우내은빛복지관은 다양한 on&off 활동으로 어르신들께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복지관에 시끌벅적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온라인 개관_ 방구석 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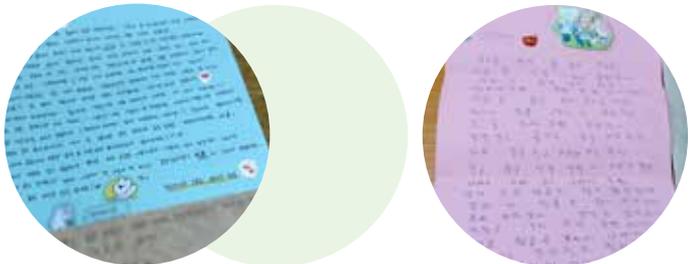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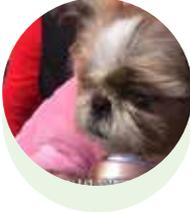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중심의 활동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변화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로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업목적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을 온라인 개관(방구석 복지관)으로 강화하여 더불어 살게 돕는 사회복지현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1. 사업명

온라인 개관·방구석 복지관

2. 사업대상

당진 북부권역(당진1·2·3동, 정미면, 대호지면) 주민 25명

3. 사업내용

시시콜콜 TV	인터뷰를 통한 주민 간 소통	(동물, 사물 대상) 자신의 쓰임새 및 코로나19 전·후 변화된 것 중점으로 인터뷰 (지역주민 대상) 일상 관련 시시콜콜한 이야기, 코로나19로 인한 직업·개인·지역사회에 대한 생각 및 변화된 일상, 응원 메시지 등 인터뷰
	동영상 제작 및 복지관 유튜브 게시	인터뷰 영상 편집 후 복지관 블로그, SNS, 밴드에 게시하여 공유
슬기로운 집콕 봉사생활	봉사활동키트	수세미 뜨개실 키트 제공을 통해 각 가정에서 수세미 제작 및 복지관 자체 나눔 활동
우리함께 어깨동무	1·3세대 간 펜팔 활동	1~10회기 제공되는 미션 키트 및 자유 주제로 펜팔 활성화
		참여자 간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한 일상생활 이야기 공유 진행



사업성과

- 1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마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주민 간 그리고 주민과 사회복지사 간의 소통 증진 및 친밀감이 향상됨. 또한 사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생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 2 비대면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장소의 제약 없이 수세미를 만들고 결과물을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나눔
- 3 아날로그식 방법을 통하여 감성을 표현하고, 1·3세대 간 팬팔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소통의 장 마련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낙담하지 말고 그 안에서의 새로운 방안과 당사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많은 고뇌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졌을지언정 마음의 거리는 좁히고자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온라인 개관! 시작은 우리만의 잔치였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 둘씩 주민들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서툴지만 온라인 개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직원소감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래서 그냥 주저리주저리 한 것뿐인데 답답한 마음이 뽕 풀리는 느낌이고, 친구한테 유튜브에 나오는 나 보라고 링크 보내주면서 안부 인사도 물었어요. 그 친구도 화면으로라도 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내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니까 더 의지가 많이 되었어요.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거죠.

살맞대며 하는 봉사와는 또 다르지만 비대면 봉사활동을 참여하면서 봉사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됐어요.

참여자소감



양수연 사회복지사
(당진북부사회복지관 복지2과)

휴관이 아닌 온라인 개관

모두가 그렇듯이 기대가 많았던 2020년, 그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였다. 올해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코로나19가 복지관의 운영을 어렵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잠깐 이러다 말 줄 알았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 하나둘씩 휴관과 개관을 반복했다. 복지관 ‘휴관’이라는 단어는 사회복지사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단어다. 휴관과는 상관없이 사회복지사들은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현장에서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휴관이 아닌 온라인 개관이라 부르기로 했다.

코로나 시기에 맞추어 비대면 중심 활동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중심의 변화를 적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다 찾은 것이 바로 복지관 유튜브 채널 ‘시시콜콜 TV’이다.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동·식물 등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 이야기들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그 내용을 촬영 후 직접 영상 편집하여 시시콜콜 TV에 게시하였다. 이후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여 변화된 생활을 응원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시시콜콜 TV의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화면에 나온 자신의 모습을 신기해했다.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화면으로 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멀리 사는 친구는 당연히 만날 수 없고 이웃을 자주 만났었던 일상생활이 시시콜콜 TV를 통해 친구도 이웃도 나

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회복지시설에 마음을 더해주는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손길을 더하고 싶어도 더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만나지 못해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코로나19에도 봉사활동은 이루어져야 했다. 그렇게 처음 도전하게 된 비대면 자원봉사를 드라이브스루로 진행하게 되었다. 봉사활동 키트(수세미 뜨개실)를 드라이브스루로 수령 후 가정에서 5개 이상의 수세미를 제작 후 과정을 사진에 담아 완성품은 복지관에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진행된 봉사활동에 완성도 및 작품성에 따라 봉사 실적을 적용했다. 나누까지 함께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완성된 수세미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나눔 활동에 사용되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봉사활동이었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봉사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처음 시도하는 비대면 봉사활동이었지만 봉사자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따뜻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적이고 거세지면서 외출을 최소화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일이 점차 늘어났다. 사람은 대화를 통하여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를 하여야 하는데 만남이 없어지니 마음속의 외로움과 고독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공감하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고민이 되었다. 뉴스를 보던 중 '뉴트로'라는 단어를 접하였다. 복고를 의미하는 '레트로'와 새로움을 의미하는 '뉴'의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였다. 문득 머릿속에 펜팔이 떠올랐다. 1세대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3세대에게는 낯선 펜팔을 지금 상황에서 적용시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비대면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펜팔과 더불어 이제는 대부분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문자,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연락을 진행하였다. 짝꿍을 소개하고 낯선 관계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자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매칭을 진행하였다. 이후 펜팔의 매개체로써 식물을 제공해드리고 안내 문자를 통하여 자유롭게 펜팔을 주고받고 일상의 안부 연락을 진행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하던 짝꿍들이 어느새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글에 눌러 담아 전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무엇을 했는지, 식물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건강은 어떤지 등 다채롭고 일상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가고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향후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당사자 간 만남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우리 복지관은 최선의 방법으로 정서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크나이프 자연숲 치유활동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성체회 새감마을

+ 추진배경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시기에 대응하여 양육시설 아동들에게 면역력 증가와 자유로운 신체활동 및 정서·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인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크나이프 프로그램과 생태적 전환의 생활양식(친환경 작물 재배 및 식생활습관 변화)을 도입하여 건강·관계 증진 및 숲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 사업목적

- 1 지속적인 참여 및 크나이프 5대 영역 실천
(명상, 음식, 수치료, 움직임, 허브)
- 2 면역력 증진 및 아동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언어적, 인지적인 적응 능력 향상



 주요내용



1. 사업명

양육시설 아동들의 면역력 증진과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크나이프 자연 숲 치유활동 '행복의 새감 크나이프 자연숲이 희망이다!'

2. 사업대상

본 원 3세 이상 ~ 18세 이하의 아동 18명

3. 사업내용

자연숲에서 면역력 증가	자연숲에서 배우는 삶의 질서	
	자연숲에서 5감각(청각, 시각, 미각, 후각, 마음) 깨우기	
	인성교육을 위한 명상, 요가, 산책 활동 등	
자연숲에서 움직임·수학 활동	자연숲에서 창의적인 신체활동 및 심리운동	수세미 뜨개질 키트 제공을 통해 각 가정에서 수세미 제작 및 복지관 자체 나눔 활동
	인지,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자연숲 게임을 통한 움직임·수학 활동	아동들과 모험 놀이터 만들기, 목공 활동, 나무 타기 등
자연숲에서 크나이프 활동	건강증진을 위한 크나이프 5개 영역 활동	
	자연숲에서 언어활동	
	수(水) 치료, 섭생, 움직임, 약초, 삶의 질서 영역	

사업성과

- 1 신체활동 증가와 친환경 농작물 재배 및 음식 섭취로 면역력이 증진되어 병원에 가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고 원내 처치가 감소되었으며 천식,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 피부질환이 호전됨
- 2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시설 안에서의 답답함을 자연에서의 활동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아이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음
- 3 자연숲 놀이를 학습으로 연계함으로써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창의적 사고력이 높아졌고, 스스로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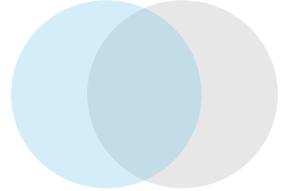
박순자 원장
(새감마을)

행복의 '새감크나이프 자연숲'이 희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동들은 외부 활동이 자제되면서 또래 관계의 폭이 줄어들고, 제한된 공간에서의 생활로 무기력과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이 늘어나고 심리·정서적 안정이 불안해져 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함께 살고 있는 집단생활에서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새감크나이프 자연 숲' 치유허동은 활동량이 많은 아동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생활을 자연에서의 숲을 기반으로 하여 면역력 증진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면역력 증진을 위한 새감크나이프의 5대 영역 프로그램 중 첫 번째, 삶의 질서는 자신을 알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가치 인식으로 상대적인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배운다. 두 번째, 물 치유는 냉·온수의 자연 자극을 매개로 신체 자극을 강화한다. 세 번째, 움직임은 규칙적인 활동으로 스트레스 내성을 증가시키고 자긍심을 강화시킨다. 네 번째, 음식은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하게 하는 음식 및 영양 치유이다. 다섯 번째, 허브는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브 및 약초를 통한 치유이다.



이 밖에도 생태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생태 교육,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생명교육, 환경 친화 및 자연 감성 친화교육, 창의·인성 발달을 위한 숫자 숲 교육, 친환경 노작활동 등이 있다.

이러한 숲 활동을 통한 결과와 평가로 의무기록 보고서에서는 아동들의 외래진료와 원내 처치가 30~40%가 감소되었고, 호흡기 치료는 100% 소거되었다. 또한 감각과 지각의 통합을 통해 학습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고(학교 생활기록부 참고), 자연숲에서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응력이 향상되었으며(기질, 사회정서발달 검사 참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향상되었다.

향후 계획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면역력 증진과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신체 및 사회·정서 프로그램 개발과 자연치유를 기반 한 교육과 복지가 연계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여 올바른 인성을 지닌 건강한 미래사회의 녹색리더를 양성시키고자 한다.

영그린 효자



호서복지재단 효자의집

추진배경

정부 지침에 따라 외부 인력 출입 금지, 가족과 대면 소통의 불가,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나들이)의 부재 등은 어르신들에게 시설 생활의 답답함, 무료함, 고립감을 유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외 텃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연스러운 비타민 D 함양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힐링을 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목적

- 1 원외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시설 어르신들의 자존감 및 삶의 질 향상
- 2 영그린 텃밭을 조성하여 자연과 교감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삶의 안정감 제공



 주요내용



1. 사업명

요양원 어르신 대상 원예 활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 유지 '영그린 효자'

2. 사업대상

본 원 입소 어르신 72명

3. 사업내용

<p>원예 치료</p>	<p>계절 원예 치료 프로그램</p>	<p>꽃 케이크, 드림캐처, 감사카드 만들기 활동</p> <hr/> <p>계절 원예 치료 프로그램 3회 진행, 어르신 40명 참여</p>
<p>작물 재배</p>	<p>작물 재배</p>	<p>상추, 치커리, 고구마, 부추, 옥수수, 방울토마토 등 파종·재배 총 16회 진행, 어르신 83명 참여</p> <hr/> <p>프로그램 활동 내역을 보호자 네이버 밴드에 게시, 원·보호자 어르신과의 소통 채널 형성</p>



사업성과

- 1 코로나19 사회에서 생활시설의 비접촉 프로그램 커리큘럼 초안 제시
- 2 원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연스러운 비타민 D 합성을 불러오며 면역력 증가, 칼슘 기능 유지, 칼슘과 인의 대사 조절, 노인의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등 건강한 신체 활력 유지 및 시설 생활에 따른 고립감 해소
- 3 계절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작물의 성장을 보며 삶의 희망 발견, 오감 자극을 통한 신체조절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인식 고취



땀과 정성이 담백 담긴 고구마 캐기를 하면서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보물을 찾듯이 신들린 듯 호미로 땅을 파헤치며 흥겨움에 흥얼거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아마도 옛일을 회상하시며 즐겁고 행복한 미소가 그려지는가 봅니다.



직원소감

- 어르신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니 몽클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르신들께 일상의 행복을 드린 것 같아서 역시 잠시 행복했네요.

직접 수확하여 드셔서 그런지 다른 날 보다 식사하시는 모습이 한결 활기차 보입니다.



보호자 소감

엄마가 해주신 고구마 즐기 반찬이 많이 그립네요. 오늘 옛날을 기억하면서 즐거우셨을 듯합니다.

산책 나올 때, 물리치료 나올 때마다 등나무 밑에 작물들이 있어서 좋아요. 나올 때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따서 밥 먹을 때 닭아서 먹으니 맛있습니다.



참여자 소감

코로나 때문에 작년처럼 영화관이나 니들이는 못가지만, 이것이라도 해서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김상미 주임
(효자의집 행정팀)

효자의집의 오늘

고령화 사회를 염려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설 기능에 대한 요구와 그에 맞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자의집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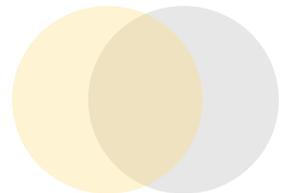
올해 초, 코로나19의 발생은 우리가 일상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을 옛 추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남, 소통이라는 단어가 접촉인지, 비접촉인지를 따지며 일상적인 면회가 접촉 면회, 비접촉 면회라는 단어로 구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고 거북했던 단어들이, '왜'라는 질문보다 일상에 동화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 효자의 집은 좀 더 어르신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자와의 그리움은 별도의 면회장을 설치하여, 인터폰 면회, 영상통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에서 타격이 컸습니다. 외부 나들이, 외부 강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져 시설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시설 내의 답답함, 무료함을 토로하셨고 그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사가 들이 머리를 모았습니다. 외부 강사 프로그램을 원내 사회복지사가 직접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좀 더 내실화되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63빌딩, 아쿠아리움, 영화관 관람, 지역사회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대신할 부분들을 고민하였습니다. 영화관은 효자영화관으로 지하 강당에서 영화 상영을 하였으며, 팝콘 등 드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하여 마치 영화관에 와있는 것처럼 외부 환경을 세팅하였습니다. 효자노래방은 사이키 조명을 구입하여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효자 기차카트를 운영하여 기차칸의 역무원들이 끌고 다니는 매점을형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둔 것이 어르신들의 산책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햇빛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원래 운영하였던 텃밭의 면적을 증가시켜 어르신들을 되도록이면 좀 더 많이 외부로 나오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흙갈이, 거름주기, 비닐 씌우기, 파종, 관리, 재배 등 전 과정에서 어르신이 참여하였습니다. 기능이 저하되신 어르신들은 휠체어에 착석하셔서 식물의 변화 과정을 시각, 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하였고 자연스럽게 햇볕을 쬐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밖으로 나오실 때마다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이 있다'며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회상능력,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내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효자의 집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처음과 끝... 그 사이에 있는 그리운 오늘을 보내고 있는 효자의 집 오늘이었습니다.



시니어 그들이 사는 세상 채널 TV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추진배경

최근 각종 스마트 기기가 나타나고 새로운 다양한 여가활동이 등장함에 따라 노년기 여가활동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농촌지역의 부족한 문화·여가활동을 개발하고 언택트를 위한 새로운 여가활동을 개발함으로써 안전하고 새로운 신노년 문화를 선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목적

- 1 뉴시니어의 크리에이터 교육을 통해 신문화를 경험하고 도전하여 노인생활 만족도 향상
- 2 문화·여가활동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하여 노년의 성공적인 삶의 욕구 지원
- 3 제작된 콘텐츠를 대중과 공유하여 뉴시니어 크리에이터의 활동과 신노년 문화 선도



 주요내용



1. 사업명

Old&New 놀이문화를 통한 크리에이터 활동 프로그램
‘시니어 그들이 사는 세상 채널 TV’

2. 사업대상

홍성군 은퇴한 60세 이상 어르신 15명, 지역주민 200명

3. 사업내용

크리에이터 앵글교실	크리에이터 활동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 진행(온라인) 영상 촬영 및 편집 후 영상 업로드 대면 수업 전환 시 소그룹 교육 방식으로 진행
	뉴미디어 활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기기 체험학습 진행
시니어 놀이터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의 일상과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통한 콘텐츠 촬영 및 영상 편집
시그널 TV	채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튜브 채널 개설 및 관리 콘텐츠 업로드 및 구독자 소통



사업성과

- 1 비대면 수업(온라인)을 통한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 19 상황과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2 프로그램 특성상 유튜브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여가활동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음
- 3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으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어르신들 또한 유튜브 활용을 통해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음. 또한, 유튜브를 통해 어르신들 누구나 손쉽게 찾아보고 싶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됨





직원소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복지관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더욱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프로그램 위한 촬영과 편집, 업로드의 쉽지 않은 작업을 거쳐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고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복지관과 저희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어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항상 집에서만 생활하여 외롭고 우울한 감정이 들었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복지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니 마치 복지관에 나와 수업을 듣는 기분입니다. 요즘은 복지관 유튜브를 시청하느라 하루라도 심심한 날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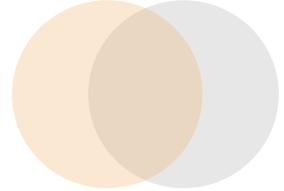
신동민 사회복지사
(홍성군노인종합사회복지관 사업팀)

시니어 그들이 사는 세상 채널 TV

시니어 그들이 사는 세상 채널 TV(이하 '시그널') 프로그램은 시니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께서 매일같이 하는 TV 시청, 라디오 청취, 장기, 바둑과 같은 문화·여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어르신들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어 새로운 문화생활의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 앵글교실은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MOU를 맺어 원활한 교육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휴관이 연장되면서 대면 수업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유튜브 영상 업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등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새로운 교육방식에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이내 흥미로워 하시며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라며 걱정되는 마음에 부담스러워하셨지만, 곧 새롭게 접해보는 교육방식을 흥미로워하시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부풀어 의욕이 충만해졌습니다. 비대면 수업에서 배운 것을 직접 어르신들이 현장에 가서 체험했습니다. 키오스크를 사용해 영화표를 구입하고 음료를 주문하는 등 언택트 신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성은 특히 역사적 인물과 볼거리가 많은 고장입니다. 독립운동가 한용운 선사 생가지와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방문하여 소개하고, 홍성 12경 탐방 콘텐츠로 여하정과 홍주읍성, 서해안의 일몰로 유명한 궁리포구와 속동전망대, 그림 같은 수목원 등을 다녀왔습니다. 촬영 중 어르신들의 모습은 마치 천진난만한 청소년으로 돌아간 듯, 즐거워하시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행복해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휴대폰으로 촬영만 해봤지 직접 시그널 TV의 주인공이 되어 출연하는 것이 처음이라면서 촬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은 힘들고 지쳐있었지만, 시그널 TV로 지친 어르신들의 마음에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어르신들의 기대감과 열정에 보답하고자 시그널 TV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릴 걷고 친굴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이적 <당연한 것들>

이 책은 COVID-19의 위기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 복지시설·단체들의 우수사례 모음집입니다.

사업에 대한 저작권은 각 사업 수행기관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이 공유하며,
지식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권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발간일 | 2020년 12월

발 간 | 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사람이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순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Chungcheongnam-do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예학로 10-22, 5층
www.cn.pass.or.kr